



美 만화계 양대산맥 DC코믹스 vs 마블코믹스

슈퍼 영웅 대격돌

◀ 24일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

내달 28일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



미국 만화계의 양대 산맥인 DC코믹스와 마블코믹스의 슈퍼 히어로들이 스크린에서 격돌한다. 그동안 상대적 열세에 놓인 DC코믹스의 히어로들이 반격을 준비를 갖췄다.

24일 개봉하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하 배트맨 대 슈퍼맨)이 선봉에 섰다. DC코믹스의 히어로들이 여러 나온다든 점에서 마블코믹스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유사하다.

마블코믹스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로 응수한다. 다음달 28일 상영된다.

◇DC코믹스의 화려했던 과거...그러나 대세는 마블코믹스=2000년대 들어 영화계는 마블코믹스의 히어로들이 주류잡고 있지만 애초 주도권은 DC코믹스가 쥐고 있었다.

슈퍼 히어로의 최초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슈퍼맨'과 슈퍼맨 시리즈를 뒤이은 '배트맨'이 바로 DC코믹스의 히어로였다.

'슈퍼맨1:2'는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성공했으나 '슈퍼맨3'는 전작보다 못한 평을 받고 '슈퍼맨4'는 망하다시피 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배트맨이다.

팀 버튼 감독이 특유의 음울하고 기괴한 분위기로 창조한 '배트맨'(1989년)은 배트맨 영화 중 최고로 손꼽힐 뿐 아니라 흥행에서도 대성공을 거뒀다. 팀 버튼이 재차 연출한 '배트맨 리턴즈'(1992)도 전작에 버금가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조엘 슈마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배트맨 포 에버'(1995)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고, 그가 다시 연출한 '배트맨과 로빈'(1997)은 배트맨 시리즈 가운데 '괴

작'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배트맨 시리즈를 리부트한 '배트맨 비긴즈'(2005), '다크 나이트'(2008),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 등 이른바 다크 나이트 3부작으로 배트맨의 명성을 되찾았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마블코믹스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마블코믹스가 직접 '마블스튜디오'란 제작사를 차려 영화 제작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마블코믹스 히어로들의 영화판권을 나눠 가진 20세기폭스(엑스맨, 판타스틱 4), 소니픽처스(스파이더맨) 등이 제각각 영화화했다면, 이제부터 마블스튜디오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마블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히어로 영화들이 공유하는 세계관)란 중심축을 두고서 히어로들을 차례로 스크린으로 이동시켰다.

'아이언맨'(2008), '인크레더블 헐크'(2010), '아이언맨 2'(2010), '토르: 천둥의 신'(2011),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2011)에서 개별 히어로만 나오다가 '어벤져스'(2012)에서 히어로 올스타팀이 출현한다.

이후에도 '아이언맨 3'(2013), '토르: 다크월드'(2013),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2014),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

◇리부트로 권토중래 꺾는 DC코믹스의 성공 가능성은=DC코믹스를 소유한 워너브러더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표적인 히어로인 슈퍼맨을 새롭게 부활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슈퍼맨 리턴즈'(2006)는 흥행과 비평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후속작이 '맨 오브 스틸'(2013)이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출한 다크 나이트 3부작의 성공

에 힌트를 얻어 기존 슈퍼맨 시리즈를 리부트한 작품이다. 이번엔 내놓은 '배트맨 대 슈퍼맨'은 바로 '맨 오브 스틸'의 이후 상황을 그렸다.

전작에서 슈퍼맨(헨리 카빌)과 조드 장군(마이클 새넌) 간 대결로 메트로폴리스가 대대적으로 파괴되자 슈퍼맨은 논쟁적인 인물이 된다. 과거 배트맨으로 활약하다가 은퇴한 브루스 웨인(벤 애플렉)은 슈퍼맨 역시 언젠가 타락할 것을 우려해 배트맨으로 복귀, 초인적 능력을 갖춘 슈퍼맨을 제압하려고 한다.

'맨 오브 스틸'을 연출한 잭 스나이더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DC코믹스 히어로 군단인 '저스티스 리그'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 저스티스 리그(정의연맹)는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 슈퍼맨, 배트맨, 윈터우먼, 플래시, 그린랜턴, 아쿠아맨 등 DC코믹스 히어로들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워너브러더스는 '윈터우먼'(2017), '저스티스 리그 파트1'(2017), '플래시'(2018), '아쿠아맨'(2018), '저스티스 리그 파트2'(2019), '사이보그'(2020) 등 히어로 영화를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극장가에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의 전작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관객 1049만명을 동원했다. 반면 '맨 오브 스틸'은 218만명을 불러모으는 데 그쳤다.

하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이 배트맨과 슈퍼맨 간 대결을 그린 첫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전작과 다른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오전 9시20분 현재 실시간 예매자 수가 10만9115명(예매율 72.2%)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팔' 덕선이 알바걸 되다

걸스데이 헤리, SBS '딴따라' 주연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알바걸'로 돌아온다.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연기자로 자리매김한 헤리(22·사진)가 SBS TV 새 수목드라마 '딴따라'의 여주인공 정그린 역할을 맡았다고 이 드라마의 홍보를 맡은 홍보사 더 톱톡이 22일 밝혔다.

정그린은 '알바의 달인'이라 불릴 정도로 하루하루 숨 가쁘게 살아가는 20대 초반의 여성. 신석호(지성 분)가 만드는 '딴따라' 밴드의 보컬 조하늘의 하나 뿐인 보호자로, 하늘의 행복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는 열혈 누나다.

올해 초 방송된 tvN '응답하라 1988'에서 여주인공 성덕선 역할을 맡아 언니와 남동생 사이에 끼인 둘째의 설움과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를 표현해 호평받았던 헤리는 차기작인 '딴따라'에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싱그러운 20대 청춘을 그린다.

'응답하라 1988'의 높은 인기 에다 걸그룹 걸스데이 활동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그는 이달 초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헤리는 "활롱한 스태프,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작업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그린이라는 친구를 시청자들에게 잘 전해드리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딴따라'에는 앞서 자정이 대형 기획사 이사로서 승승장구하다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로 몰락해 작은 신생기획사를 차리는 신석호 역으로 출연을 확정지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쓴 유영아 작가의 신작으로, '미남이시네요'의 흥성 장 PD와 '픽'의 이광영 PD가 함께 연출을 맡았다.

현재 방송 중인 '돌아와요 아저씨' 후속으로 방송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50 인강극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00 모닝와이드 1~2부 30 KBC 모닝와이드
7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덕더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을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재)	00 네트워킹 특서 (아름다운 총복 아름다운 사람들)(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공사차량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재)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덕더 365 0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충족제 35 글로벌 문화유산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재)	00 SBS 12뉴스 50 덕더 365 55 테마스페셜 55 TV 불교의 꿈지락
1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2 30 직언직설	00 시사기획 창(재) 55 숨터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55 텔레몬스터(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0 한국인의 밥상(재) 55 튜브생물체조(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이하 동물탐험대 3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청년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재)	00 TV 유치원 30 아육장 PD의 자연은 담은 한끼	0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40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00 고행이 보인다 30 푸르기 탐구생활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10 제20대 총선 정당정책 연설 30 시사선단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변신자동차 도보 30 SBS 뉴스스페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더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사람과 사람들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불교의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50 한번 더 해피엔딩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숨터	00 공사차량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백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한밤의 TV연예
12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예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은둔의 왕국 무스타)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잔멸치볶음밥과 잔멸치볶음)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인3 왔다 사춘기 13:50 이암 스페이스 정글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책과 땅 14:30 미연미아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철학자 후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집의 파오파오 16:00 출동! 슈퍼강사(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명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뽕뽕뽕 뽕뽕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지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신비의 모험의 땅, 아라비아 반도) 21:30 한국기행 (불길따라 남도 섬을 가다 -바다, 삶을 노래하다 조도) 21:50 EBS 다큐 프리덤 (청춘) 22:45 극한직업 (기름기자미집이) 23:35 장수의 비밀 24:05 지식채널 e 24:10 한국영화대전 (독 있는 늑대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3일(음 2월 15일 甲辰)	
子	48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60년생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72년생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84년생 장애물이 있다면 차고 있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1, 78	午	42년생 교육만 자체한다면 결과는 양호할 것임에 틀림없다. 54년생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상황임을 감안하자. 66년생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귀한 날이다. 78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능히 버텨 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14
丑	49년생 분수를 지키면 흥사를 비껴갈 수 있다. 61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73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85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에 주목하자. 행운의 숫자 : 34, 41	未	43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55년생 방식한다면 급락할 수도 있는 국면이다. 67년생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결과가 귀결될 수다. 79년생 확실하게 정진하면 기쁨과 성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25
寅	50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이 중단 될 수 있다. 62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를 것이다. 74년생 회자정리 하는 법이다. 86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관습은 것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11, 55	申	44년생 참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56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볼 일이다. 68년생 가급적이면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이 낫다. 80년생 보편적인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7, 67
卯	51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63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75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87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0, 02	酉	45년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서 충격이 클 수다. 57년생 뜻밖의 만남으로 인해 재물이 들어오겠다. 69년생 불편하다면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81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크게 후회하리라. 행운의 숫자 : 26, 92
辰	40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기만 하느니라. 52년생 길인을 만나리라. 64년생 성과가 배가 되리라. 76년생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88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행운의 숫자 : 64, 23	戌	46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58년생 머리로는 파악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써 공감하자. 70년생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릴 줄 알아야만 한다. 82년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49
巳	41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53년생 소담스럽지 하지 마라. 65년생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게 되리라. 77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89년생 굳이 지름길을 찾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1, 44	亥	47년생 보이지 않는 빛에 걸릴 수도 있다. 59년생 축적해 왔던 바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루가 될 것이니라. 71년생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더라도 결립돌부터 치워라. 83년생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1, 91